

문콕 앓車車...광주 DJ센터 주차면 꼼수의 비밀 너비 2.3m 라더니...실제 재 보니 2.15m

상당수가 법 규정보다 좁아
행사 방문객들 하차 진땀
국제도시 광주 이미지 먹칠
준공허가 당시 유착 의혹도

광주를 대표하는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산업 공간인 김대중컨벤션센터가 기본적인 편의시설인 주차면 규격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국내외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는 것은 물론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도시 이미지를 먹칠하고 있다.

특히 건축법상 주차장 설치 규정을 어겼음에도 준공허가를 받아내 당시 건설업체와 관련 공무원들의 유착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광주시와 김대중컨벤션센터(이하 센터) 등에 따르면 센터 내 주차장에는 하루 평균 300대에서 많게는 400여대의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민은 물론 외지 방문객들은 타 공공시설에 비해 유독 좁은 주차면 탓에 주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지난 2005년 9월 6일 개장한 센터는 총 주차대수 1502대로, 부설주차장 459대(지상 264대, 지하 195대), 제1주차장 478대, 제2주차장 565대 등을 갖추고 있는데, 일부 주차면의 폭이 법 규정보다 좁게 그려져 있다.

특히 1990년 12월24일부터 시행중인 주차장법에서는 주차면 규격으로 폭 2.3m, 길이 5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센터의 경우 지하주차장 내부 기둥을 중심으로 일부 주차면의 폭이 2.15m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승용차의 대형화 추세로 전폭(全幅)이 늘어나면서 일반 중형차 기준 차량



“내리기 힘들어”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방문한 한 시민이 비좁은 주차면 때문에 차에서 내리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의 전폭이 1.8~1.9m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차량 한 대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겨우 0.5m인 셈이다.

더욱이 김대중컨벤션센터 지하주차장의 경우 주차 경계선(원색)의 폭이 15cm를 차지해 실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폭은 2m 남짓이었다. 결국 승용차 한 대도 주차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김대중컨벤션센터의 경우 육아, 임신, 출산 등을 주제로 한 박람회 가 자주 열린다는 점에서 유모차 등을 가지고 오는 젊은 고객들의 경우 좁은 주차면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김대중컨벤션센터와 달리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확인한 광주시 등 타 공공시설과 백화점 등 민간 시설 20여곳의 경우 주차 규격을 모두 준수하고 있었으며, 이

용객 배려 차원에서 법에서 정한 주차규격보다 넓게 조성한 곳도 있었다.

특히 외국계 회사인 경기도 광명에 있는 이케아(IKEA)는 모든 주차면(2000대)의 폭을 2.7m 이상으로 조성해 고객들 사이에서 주차하기 편한 곳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1135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보유한 광주 신세계백화점 역시 지상 주차장은 폭 2.3m, 지하주차장은 2.55m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 27년간 주차장법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차폭은 커지면서 좁은 주차면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실제 중소형차인 현대차 아반떼는 1995년 당시 폭 1.7m, 길이 4.5m에 불과했지만, 2017년형은 너비 1.8m, 길이 4.6m로

커졌다. 기아차 스포티지도 1993년 너비 1.7m, 길이 4.0m에서 2018년형은 너비 1.8m, 길이 4.4m로 몸집을 키웠다.

국도교통부도 주차공간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고 차량폭이 커진 것을 반영해 2012년 7월 이후 50cm 이상의 주차장을 지을 경우 전체 주차 면의 70%는 일반형(너비 2.3m, 길이 5m)을, 30% 이상은 확장형(너비 2.5m 길이 5.1m)으로 만들도록 의무화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관계자는 “건물을 지탱하는 지하기둥과 기둥 사이에 법적으로 규정된 주차면 4개를 확보하다 보니 좁게 시공한 듯하다”면서 “이런 시일 내에 전 주차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아찔한 대형 드론 사고

국방과학원 수백억 들여 개발
140kg 무인비행체 시험비행중
장흥 경로당 지붕으로 추락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가 수백억원을 들여 개발한 무인비행체(드론·사진)이 추락해 마을 경로당 지붕을 파손했다. 주민이 건물 내에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장소를 가리지 않는 드론의 무분별한 비행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7일 오전 8시경 장흥군 관산읍 고마리 옛 경로당건물(1층 규모) 앞 해안길에 드론(날개길이 22m·동체길이 10m·무게 140kg)이 추락했다. 드론이 추락과 정에서 지붕에 부딪쳐 건물 일부를 훼손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당 드론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오전 7시경 시공소에서 약 25km 떨어진 고흥우주항공센터에서 이륙시킨 것으로, 2013년부터 올해까지 450여대를 투입한 ‘성층권 장기제공 무인비행체 설계기술 개발’사업의 결과물이었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장착해 성층권(고도 10~50km)에서 약 24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는 드론으로, 이날은 12시간 체공을 목표로 비행하던 중 1.6km 상공까지 올라갔다가 이륙 40여분 만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이 이날 추락한 장소는 인가와 불과 30여m도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200

여가구 400여명이 살고 있는 고마리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크고 작은 드론 추락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다.

지난해 6월18일 대학생들이 만든 드론이 고흥군 방죽도 뚝방에 추락해 불이 났고, 지난 5월5일 경북 봉화군 봉화읍에서는 축제 도중 드론이 추락해 어른 1명과 어린이 3명이 다쳤다. 지난 2005년 4월 경남 진주의 한 초교에서 ‘교내 과학의 날 행사’ 도중 시연중이던 모형헬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초등학생이 숨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드론 비행에 대한 제재와 함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관리기관인 부산항공청과 드론사업 육성을 기치로 내건 전남도는 정확한 사고 통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내연녀 5살 아이 폭행 실명시킨 20대 징역 18년

방치한 친모는 6년 선고

5살 아이를 상습 폭행해 시력마저 잃게 한 20대 남성과 이를 방치한 아이의 친모(광주일보 7월18일자 6면)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중)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이 어머니 최모씨(35)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 가운데 살인미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살인 행위에 미치지 않았지만, 그에 버금가는 행위로 판단된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참혹한 아동학대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과거 수준의 처벌로는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인식도 있다”며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참고적인 양형 기준의 상한(13년)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목포=김병권기자 dss6116@

아무리 사유지라지만...누드펜션 들어선 산골마을 ‘발칵’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한 산골마을 인근 2층짜리 건물 주변에서 누드펜션을 표방하는 동호회 회원들이 최근 발거뱃은 상태로 돌아다니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돼 동네주민들이 고통을 호소.

○이 건물은 주민들이 사는 집단 거주지와 100~200m가량 떨어진 곳으로,

동호회 측은 “개인의 사적 영역인 건물인데 동네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27일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사유지라도 실외로 나오면 풍기문란죄 아닌가”, “사는 거주지에서 벗고 살지 왜 남의 동네 가서 벗고 다니느냐”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쇄도.

/연합뉴스

전남 올 첫 살인진드기 감염 사망

3년새 7명 숨져 주의 필요

야생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가 전남에서도 발생했다. 올해 처음이다. 최근 3년새 전남에서만 SFTS 감염으로 7명이 숨져 야외활동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SFTS에 걸린 60대 여성 A씨가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25일 숨졌다.

해남에서 농사를 짓는 A씨는 지난 18일 발열하다가 발열·설사·근육통 증세로 해남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혈소판 감소, 신장 기능 장애가 발생했다. 24일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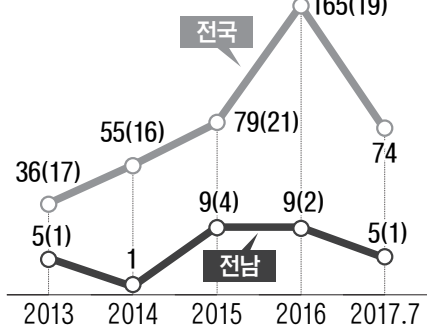
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다음날 사망했다.

혈청검사 결과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 SFTS 감염자는 매년 급증, ‘살인진드기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사망한 환자는 2013년 17명, 2014년 16명, 2015년 21명, 지난해 19명이다.

전남에서도 환자가 크게 늘었다. 2014년 1명이던 SFTS 환자는 2015년과 2016년 각각 9명으로 급증했다가 올해 들어서도 벌써 5명이 발생했다. 사망자도 2015년 4명, 2016년 2명, 올해 1명이 발생해 ‘살인진드기’ 공포가 지속되고 있다.

■ 최근 5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현황

(단위:명, ()는 사망자, 자료:질병관리본부)



SFTS는 진드기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6~10월 휴가철·추석 성묘 등 야외활동이 잦을 때 많이 발생한다. 치사율은 10~30%이며, 치료가 늦어지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영광 한빛원전 4호기

콘크리트 벽서 구멍 57개

지난 5월부터 계획예방정비(정기점검)에 들어간 영광 한빛원전 4호기 콘크리트 벽 곳곳에서 공극(孔隙)이 발견됐다.


27일 한빛 원전본부에 따르면 4호기 격납 건물 상부돔과 하부 경계인 높이 68m 지점에서 가로 14cm 세로 20cm 크기 샘플 58개를 채취한 결과 57개에서 공극이 발견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이날 공극 발생 원인으로 격납고가 만들어질 당시 콘크리트 다짐작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콘크리트 공극과 CLP 부식부위를 보수한 후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재가동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용희기자 kimyh@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형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